2016년 2월호 (제308호)

廣州李氏會報

遁村先祖 庭訓
둔 촌 선 조 정 훈

讀書可以 悅親心
독 서 가 이 열 친 심
독서는 어버이의 마음을 기쁘게 하느니

勉爾孜孜 惜寸陰
면 이 자 자 석 촌 음
시간을 아껴서 부지런히 공부하라

老矣無能 徒自悔
노 의 무 능 도 자 회
늙어서 무능하면 공연히 후회만 하게 되느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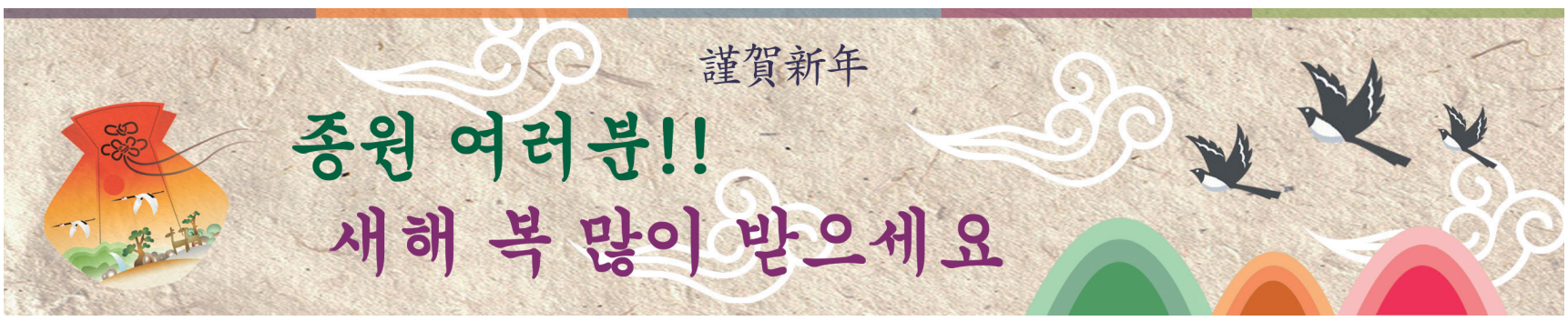
頭邊歲月 苦駸駸
두 변 세 월 고 침 침
머리맡의 세월은 멈추지 않고 쏜살같이 흐르도다.

遺子滿籯金
유 자 만 영 금
자손에게 금을 광우리로 준다해도

不如敎一經
불 여 교 일 경
경서 한권 가르치는 것만 못하느니라

此言雖淡薄
차 언 수 담 박
이 말은 비록 쉬운 말이나

爲爾告丁寧
위 이 고 정 녕
너희들을 위해서 간곡히 일러둔다.



2016年 대종회 신년교례회 개최

- 각계 문중대표와 인사들이 모여 신년인사와 덕담을 나누며 새해를 다짐 -

대종회(도유사 재진)는 지난 1월7일 대종회 지하회의실에서 2016년(丙申年) 새해를 맞아 문중 어르신 그리고 각 지파 도유사 등 80여 주요 인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신년 교례회를 가졌다.

특별히 이 자리에는 경재 현 육영수 영부인 추모상 건립위원회 위원장(전 방송통신위원장), 주영 국회의원(전 해양수산부장관), 종구 전 국회의원, 수구 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총재, 우영 · 해재 대종회 전도유사께서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었다.

이날 신년교례회는 종태 대종회 총무유사의 사회로 먼저 국민의례, 조상님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참석인 상호 새해인사, 주요인사 소개, 도유사 신년인사, 참석인사의 덕담을 듣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새해인사에서 대종회 재진 도유사는 "종인 여러분 오늘 다시 뵙고 새해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지난해 이 자리에서 똑같이 신년교례회를 했는데 면면히 건강한 모습을 뵈니까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를 전한 다음, "작년에도 새해를 맞을 때 금년에는 좀 더 잘해야지 하며 마음으로 다짐하고 한 해가 지나갔는데 어느덧 또 한해가 왔습니다."라고 말하고, "지난 한해 동안 우리나라도 그렇고 집안도 그렇고 많은 일들이 있어서 일부 학자들은 지난 한해를 혼용무도(混庸無道)로 표현했습니다. 그 말은 참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은 기분 나쁘고 또 부연해 생각해 보면 그렇게 무질서하고 법 없이 살아온 것이 지난 한해였으니까 금년에는 다시 한번 가다듬고 가자하는 그런 경고로 보겠습니다.

우리종회도 지난해에 좀 부끄러운 일도 있고 시끄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딛고 비온 후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과 같이 올 한해도 이 자리에서 여러 종인들을 주인으로 모시고 종사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새해 丙申年 우리 목표를 한 발짝 더 발전해 나가보자 라는 뜻에서 뛸 도(跳)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덕목이라고 하면 덕목이고, 태도하면 태도라 할 수 있는 '은인자중(隱忍自重)' 하는 것을 금년 우리 집행부의 지침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들 잘 지켜봐 주시고 잘못한 것은 엄히 꾸짖어 주시고 잘한 것이 있으면 잘한다고 박수를 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모두 우리 종회의 앞날을 "한 발짝 더 나가라" 하는 격려차 오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 한해를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해 종사에 임하겠습니다. 끝으로 종인 여러분들의 온 가정이 모두 화평하시고 건강하시길 빕니다." 라고 인사를 마쳤다.

이어서 우영, 해재 전 도유사님의 새해인사와 덕담을 듣는 시간을 가졌는데, 두 분 모두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를 비롯한 각계각층에 제몫 찾기에만 바쁜 지도자들의 그릇되고 애국심이 결여된 행태가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개탄과 우려의 말을 전하며 이럴 때 일수록 둔촌선생의 피를 받은 우리 광이가 합심하여 그 옛날 8극 조정의 영광을 이어받아 우리나라가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데 역할을 다하자고 강조하고, 종회의 발전과 종원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기를 빌어 주었다.

다음은 원로 복재 옹의 덕담이 이어졌는데 복재 옹께서는 "내 나이 올해 93세로서 안사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오늘 신년교례회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선조님, 조상님들의 덕분입니다. 할 말은 많지만 앞에서 좋은 말들을 모두 했으니 저는 올 한해 우리 광주이씨는 모두 건강하시고 각 가정에 행운이 충만해서 복을 많이 받으시라고 기원을 드립니다." 라고 인사를 마쳤다.

이어진 순서로 새해를 축하하고 건강을 나누는 시루떡 절단식과 샴페인 축포식을 가진 후 경재 위원장과 주영의원의 건배와 덕담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경재 위원장은 새해인사를 전한 후 "앞에서 도유사님들을 비롯해서 복재 큰 어르신께서 좋은 덕담을 해 주셨는데, 사실 대한민국 5천년 역사상에 어려움이 없었던 때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스스로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하고 걱정하시는 소리가 있지만 외국에 나가면 '대한민국 최고다' 그럽니다. 이제 그 어려움은 다 극복되고 새해에는 좋은 일이 많을 겁니다. 특히 우리 광이들이 재도약하는 한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금년은 우리 광이에게 더욱 큰 영광의 해가 되길 바란다" 면서 "지화자" "좋다!", "광리" "좋다!"로 건배사를 마쳤다.

다음 순서에서 주영 의원은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도 소원하시는 일 모두 다 이루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한분 한분 모두 넘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종회가 재진 도유사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고, 또 올해 우리 광이가 대거 약진해서 걱정하시는 국회 개혁을 광이 출신들이 중심이 되어 이룰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앞장서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불어 제가 광문회 회장을 맡아 그동안 많은 성원 속에 잘 이끌어 왔습니다만, 올 한해도 많이 참석해 주시고, 그런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좋은 인재들이 또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건배사를 금년도 총선도 있고 하니까 '우리 광이 승리하리라' 하면 '빈체로'라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체로'는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에 보면 '잠 못 이루는 공주'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빈체로'가 바로 '승리하리라' 입니다."

자! "우리 광주이씨 승리하리라!", "빈체로!"라는 환호와 함께 건배사를 마쳤으며, 잠시 후

종구 전 의원이 도착하여 인사말을 들을 수 있었다. 종구 전 의원은 "바쁜 일정관계로 조금 늦게 도착해 죄송하다"고 말한 다음, 이번에 서울 강남 갑구에서 출마하게 됐음을 밝히고, 문중 여러분의 많은 지원과 성원을 당부하며 꼭 승리해서 우리 광주이씨의 명예와 프라이드를 걸고 고인이 되신 아버님(중재 전 의원)과 선조님들의 유지를 받들겠다고 힘주어 말하며 인사를 대신했다.

이어서 참석자 모두는 회의장에 차려진 뷔페로 식사를 나누며 화합과 돈목의 시간을 가진 다음 이날의 행사를 모두 마쳤다.

재경화수회 신년교례회 개최

재경화수회(회장 재진)는 지난 1월15일(금) 대종회 지하회의실에서 9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화수회 신년 교례회를 가졌다.

충교 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재진 회장은 "추운 날씨에도 원근에서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 전한 다음 "새해마다 남달리 계획들을 세울 수 있는데 금년에는 꼭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워 나중에 뒤돌아보지 않게 합시다.

그리고 종회의 금년 귀중한 사업으로 청장년 육성을 위해 우리가 거족적으로 참여해서 미래의 주인공을 양성하도록 하자"고 말하고. "고령화 시대를 맞아 종회의 오늘 현상도 십년 이십년 후를 예측하기 어려운데 이때 청장년 육성사업이야말로 보람된 일일 것입니다."라며 청장년 육성의 중요성과 의지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지난해 종회를 운영하면서 집행부 내에 이런 저런 불협화음들이 생겨 종인여러분께 심려 끼친 것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전부가 책임자인 저의 부덕함 때문이라 자책하고, 다시한번 심신을 가다듬어 새해엔 보다 더 종인 여러분이 만족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학자들이 지난해의 사회 평을 사자성어로 혼용무도(混庸無道)라 했는데, 이는 법과 질서와 도덕도 없이 혼탁하다는 뜻인바, 종회 책임자인 저도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금년 丙申年엔 우리종회의 목표를 도(跳)로 표현해서 한발이라도 전진하고 발전하자는 뜻으로 했고 행동지침으로는 은인자중(隱忍自重)으로 했습니다. 어려울 때 일수록 알게 모르게 참고 스스로 몸가짐을 신중히 하고 겸손하게 임하자는 뜻입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각 가정마다 축복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라고 인사를 마쳤다.

다음은 원로이신 복재옹(93세)께서 "우리는 훌륭한 조상님들 덕분에 오늘을 살고 있다. 모두가 합심하여 보다 좋은 종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덕담을 해주시어 모두가 박수로 화답하였다.

이어서 신년떡 절단식과 아울러 건배를 한 후 준비된 뷔페를 먹으며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 화수회 총무 충교 記 –

2016년 광문회 신년모임

광문회(회장 주영)는 지난 1월14일((목) 오후 6시 명동 퍼시픽호텔 2층 남산홀에서 2016년 신년 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주영 회장(현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대종회 재진도유사, 해재 전 대종회도유사, 경재 전 방통위원장, 종상화백, 만재 전 의원(광문회 총무), 종구 전 의원, 종철 퍼시픽호텔 회장, 용학 수원대교수, 연주 청년유권자연맹 대표, 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택수 리얼미터 대표이사, 등 40여명이 참석 하였다.

만재 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국민의례, 조상님들을 위한 묵념을 시작으로 먼저 주영 회장의 인사가 있었으며, 이 자리에서 주영회장은 2016년도 붉은 원숭이해를 맞아 첫 모임을 갖게 되었으며, 지난 한해 광문회 발전을 위해 많이 참여해 주시고 열성적으로 도와주신 여러분께 감사함을 전하고 금년 한해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그리고 올해는 총선이 있는 해로서 오늘의 특강 주제를 "안철수 발 야권 재편과 총선 전망"으로 정했다고 말하고 택수 리얼미터 대표(본문 좌통례공파 23대손)를 소개 하였다.

이어서 주요 참석인사의 소개와 인사, 건배사가 있었으며, 끝으로 택수 리얼미터 대표의 특강을 많은 관심 속에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 종철 광문회 부총무 記 –

전국 청장년연합회 신년인사 및 간담회 개최

- "廣州이씨의 미래는 우리들의 책임" 이라는 슬로건 걸고 열띤 토론 벌려 -

廣州이씨 청장년연합회(회장 종위)는 2016년 丙申年 새해를 맞아 새로운 변화로 청장년연합회를 혁신해 나가기위해 "광주이씨의 미래는 우리들의 책임"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지난 1월 16일(토) 오후2시부터 17일(일)오전10시까지 전국 16개 지역 중 13개 지역 회장, 총무, 감사 등 43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선운사로 소재 "선운산 유스호스텔"에서 신년인사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16일 오후 2시부터 시작한 이날 회의에는 종두 현 고창종회 총무의 진행으로 특별히 참석해 준 금채 전연합회장, 용일 자문위원장, 종태 대종회 총무유사에 대한 소개와 인사, 그리고 종위 연합회장의 인사가 있었다.

이어서 진행된 본회의에서는 청장년연합회의 활성화 및 발전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이 있었는데, 그 결과 회원의 발굴방안으로는 각종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이용하는 방안, 여성회원 편입방안, 등이 거론 되었으며,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는 보학강의 방법 개선을 통한 회원들의 참여 동기부여, 회원연령을 65세 이하로 하고 정예화, 전국연합대회만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장기적인 측면을 고려한 새로운 조직체계의 구성,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회원관리 등 모임의 운영방법을 개선해 나가자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고 대종회와 협의키로 하였다.

– 청장년연합회 –

[사진으로 보는 이달의 '소식']

⇧ 신년교례회에서 덕담과 건배를 제의하는 경재 전 방통위원장

⇧ 재경화수회 신년교례회 신년떡 절단

⇧ 산악회 정기총회 후 격려하시는 재진 도유사

⇧ 청장년연합회 간담회 건배 제의

⇧ 수상자와 함께하는 용호회장

⇧ 광문회 신년모임에서 건배를 나누는 회원들

제30회 전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대회 개최

- "아름답고 밝은 세상 우리가 만들어요." 라는 주제로 -

제30회 전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대회가 지난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전남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회장 이용호) 주관으로 순천 팔마체육관에서 전국의 발달장애인과가족, 특수학교 지도자 등 3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보건복지부와 전라남도, 순천시 등이 후원하는 개막식에서는 전라남도 이낙연 도지사, 보건복지부 김원득 사회복지정책실장, 이정현 국회의원, 순천시 조충훈시장, 전라남도내 각급기관단체장을 비롯 장애인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3일간의 일정으로 발달장애인예술제와 발달장애인자기권리주장대회, 체육대회 마지막 날에는 입상자 시상, 경품 추첨 등 폐막식에 이어 국가정원 1호인 순천만정원을 비롯 드라마세트장, 낙안읍성, 선암사, 송광사 등을 찾아 아름다운 순천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이용호 협회장은 "대회가 생긴 이래 전남에서 처음으로 개최한 제30회 전국지적장애인복지대회에 물심양면으로 후원해주시고 개막식 행사에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신 모든 분들 덕으로 전국 각 시도에서 오신 지적발달장애인과 그의 가족 3천명을 모시고 2박3일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전국대회를 계기로 복지증진과 문화 · 체육활동의 활성화와 지적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배려와 이해의 폭이 넓어지길 기대한다."고 인사말을 했다.

이용호 회장은 전라남도에서 인정한 봉사인으로 전라남도지적발달장애인 복지협회회장, 남북지역 교류 순천시협의회초대회장, 민주평화 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순천시 수석부회장, 대한적십자사 순천지구협의회장, 법무부 교정위원 순천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순천중앙로타리 클럽회장, 순천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총동창회 초대회장,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활동 등 다양한 사회봉사단체장의 직책을 맡아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봉사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동백장(사회봉사활동공로), 국민포장(국가와 사회 발전공로), 남북화해와 평화협력 실현을 위해 노력한 공으로 대통령상, 장관상 4회, 도지사상 3회, 순천시장상 4회, 대한적십자사 총재상 6회. 로타리 총재상 4회 수상을 비롯하여 각종 표창장 및 감사장 27회 수상경력을 가지고 있다.

– 광주 · 전남 종친회 –

보광회 신년하례회 모임 가져

병신년 새해를 맞아 양진재공 자손 모임인 보광회 회원들이 부부 동반 신년 하례회를 가졌다.

2016년 1월 12일(화)강남 반포동의 반포원 양식집에서 중재 회장과 호은 복재, 옥암 경재 전의원, 옥재 광원군파 도유사등 40여명의 회원들이 반갑고 화기애애한 분위에서 집안일과 지난 얘기들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용훈 전 대법원장은 참석 길에 다른 일이 생기고 종구 전의원은 생방송 관계로 참석을 못한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바르게 고칩니다.

〈제 307호〉

- 3면 우측 상 14행 : 틀위패를 → 에위패를
  : (士林)와 → (士林)과
- 4면 중앙 하 16행 : 좌수조(佐水曺) → 좌수조(佐水曹)
  우측 하 2행 : 노수신(慮 → 노수신(盧
- 7면 상단 우측 하 13행 : 총무윤사님 → 총무님
- 8면 상단 좌측 하 13행 : 백평(佰平) → 백평(伯平)
  중앙 하 7행 : 姬奭 → 姬奭
  우측 하 16행 : 姬奭 → 姬奭
- 9면 상단 우측 상 4행 : 이용운 → 이용훈

알 림

1. 재경화수회 모임
   - 일 시 : 2016년 2월15일(월) 호후6시
   - 장 소 : 대종회 지하회의실

2. 산악회 산행
   - 일 시 : 2016년 2월21일 오전10시
   - 장 소 : "북한산 둘래길"

   ※ 상세내용 12페이지 안내문 참조

遁村先祖 이후의 역사(41)

이 面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할 譜學을 上代로부터 계속하여 연재하고 있습니다.

우천공(牛泉公) 휘 약수(諱 若水) 행장(行狀)

(文景公 曾孫)

字는 止源, 號는 牛泉, 成宗 丙午(一四八六)年生이시고, 中宗 己卯年에 賢良科 로 薦擧받았으나 科擧보지 않으시고, 北門禍(己卯士禍)가 일어나자 太學(成均館) 諸生을 引率하고, 疏首가 되어 趙靜菴諸賢을 救出하기 爲하여 앞장서서 闕門 앞 에 나가 號哭하니 哭聲이 天地를 震動하였다. 中宗이 震怒하여 曰「儒生들이 大闕 앞에 와서 號哭하는 일은 千古에 없는 일이라」하여 잡아들이니, 公은 對答하여 曰「옛날에 양진(楊震)이 罪因로 잡히니 太學儒生들 三千名이 대궐(大闕)에 나가 號哭한 일이 있습니다.

우천공 (휘 약수) 사당 "인산사"

殿下께서 하시는 오늘의 일이야말로 千古에 없는 일입니다」하였 다. 獄에 갇히어 拷問을 당하니 流血이 滿面하였다. 辛己年에 平海로 流配되었다 가 禮山으로 옮겨지고 辛卯年에 大與에서 卒하시었으며 己卯錄에 올려 있다. 墓 는 大興牛井洞後麓辛坐이고 墓碣이 있다. 仁祖戊子年에 士林에서 墓下에 祠堂을 세우고 奉享하였다.

配位는 尙州朴氏이고 父는 士華이며 墓는 完州高山面 陽也里 燕谷卯坐이고 墓碣이 있으며 一子가 있다. 또 配位는 全州李氏이고 父는 孟華이며 司憲府監察이고 墓는 大興遠東面博山酉坐인데 夫君墓下辛坐로 移葬하였고, 一子가 있다.

준암공(樽巖公) 휘 약빙(諱 若氷) 행장(行狀)

(文景公 曾孫)

字는 喜初, 號는 樽巖, 成宗 己酉(一四八九)年生이시고, 中宗 癸酉年에 生員試 에 壯元하시고 甲戌年에 文科及第하여 翰林을 거쳐 湖堂에 뽑혔고, 己卯에 吏曹佐郎으로서 趙靜菴과 더불어 배척(排斥)당하여 罷職되고 丁酉年에 赦免되었고, 己卯年 에 韓山郡守로서 魯山君(端宗)의 代를 세울 것과 燕山主를 奉祀할 것과 福城君 嵋의 원좌(寃坐)를 主張하며 上疏하였다가 罷職되었다. 乙己年에 숨어 있다가 丁未年에 壁書事件으로 獄事가 일어나 弟若海와 더불어 同日에 잡히었으며 後에 謫所에서 賜藥을 받았다. 벼슬은 사복시정지제교(司僕寺正知製敎)에 이르셨다. 宣祖 庚午年에 신원복관(伸寃復官)되고 遺稿一卷이 刊行되었으며, 墓는 忠州末屹山 先考墓下에 있고 短碣이 있다. 配位는 缶溪洪氏이며 父는 懸監彦昇이고 墓는 祔이다. 長男은 洪男이고 二男은 洪胤 이다.

준암공 (휘 약빙) 묘소

수암공(首巖公) 휘 약해(諱 若海) 행장(行狀)

(文景公 曾孫)

字는 景容, 號는 首巖이시며, 燕山 戊午年(1498)에 生하시고, 中宗 丙子年에 進士하고 乙未年에 文科及第하고 戊戌年에 탁영시(擢英試)에 合格하여 乙巳年에 弘文館 直提學으로써 羅州牧使로 내침을 받고, 丁未年에 慶源으로 流配되었다가 壁書事件의 獄事가 일어남에 兄若氷과 더불어 羅湜 · 羅淑 등과 같이 一罪로 論斷되어 謫所에서 賜藥을 받았다. 宣祖 庚午年에 伸寃復官되고 益山 南村書院에 奉享되었다. 墓는 忠南恩津崇孝庵洞에 있다. 配位는 淑夫人 晉州蘇氏이며 父는 郡守世儉 이고 墓는 祔이다. 아들 長은 明善으로 配에 順興安氏를 娶하였고 次는 洪善이고, 長女는 權萬英生員이며, 二女는 徐震男이고, 三女는 金光 察訪이다.

수암공 (휘 약해) 배향 "화암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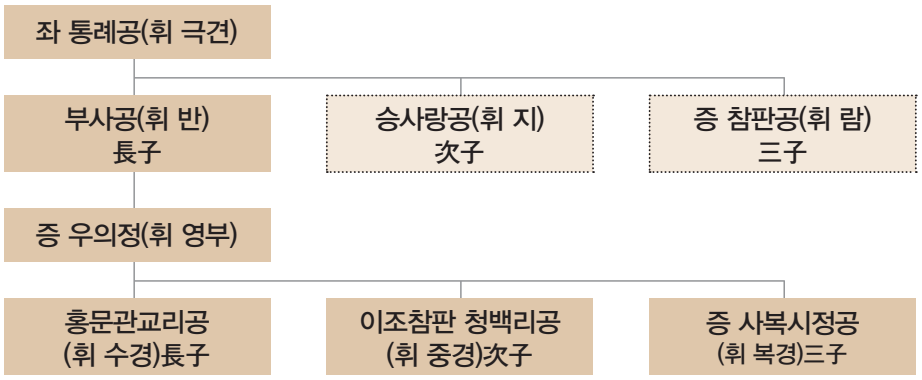
지파도유사글 좌통례공파

長端府使公(諱 攀)의 後孫과 集成村

- 좌통례공(諱 克堅)의 장자 -

좌통례공(諱 克堅)께서는 3남을 두시었으며 장남 장단부사공(諱 攀)이시고 차남 승사랑공(諱 摯)이시고 삼남 증 참판공(諱 擥)이시다.

이번 편에는 장남이신 장단부사공(諱 攀) 후손의 집성촌인 경기, 충청, 이북 지역 후손들의 행적을 소개 하고자 합니다.



■ 장단부사공 (휘 반 : 14060-1534)

公께서는 세조5년(庚辰 1460年)에 태어나서 일찍부터 유가(儒家)의 의표(儀表)를 갖추게 되어 기량과 학문으로 이름이 났다.

진사에 합격하여 공조, 형조 좌랑, 한성판관, 옥천, 순창군수 경기 장단부사를 역임하셨고, 이조참의에 증직되시었다.

중종29(甲午 1534년) 75세에 별세하여 묘소는 군산시 임피면 유촌 선고묘하 이다. 배(配)에는 증숙부인 여산 송 씨 묘는 부군 묘 우편에 있고, 증숙부인 원주 이 씨는 부군과 쌍분이시다. 공께서는 조심스럽게 벼슬자리에 임하고 과업을 가장 우수하게 처리하여 남과 사귀는데 어디까지나 마음속에 깊이 사귀고 겉으로만 하는 일이 없고 따라 변함이 없으므로 세인이 다 놀랍다 했다. 묘지문은 호음(湖陰) 정사룡(鄭士龍)께서 謹撰 하셨다.

* 정사룡: 본관 동래인, 자는 운경(雲卿), 1542년(중종37)1544년(중종 39)예조, 공조판서를 지내시고 장자이신 휘 수경(諱 首慶)과 선대로부터 친분으로 선 고조 의 갈명을 청하여 상세히 서술하였다.

■ 증 우의정 (諱 英符 : 1487-1523)

글을 읽을 때, 한번 보면 외우는 총명이 있고 슬기로워서 중종8년(1513년) 15세 나이로 생원시에 합격, 18세에 문과에 급제하여 정언을 거쳐 한림, 이조정랑을 역임하시다가, 기묘사화에 연루되시어 삭탈관직을 당하셨다.

선외가(先外家) 고장인 임피면 유촌 에 내려가 지내시다가, 4년후 인(1523년) 향년 37세 별세하셨다. 이조참판에 증직되고 아들 (諱 重慶)이 귀하게 되어 우의정에 증직되었으며, 기묘명현에 추대 되시였다.

묘소는 선고 위쪽에 있으며 배위는 증 정경부인 용인이씨는 3남1여 두시고, 묘소는 부군 묘소의 좌측에 있다. 公의 신도비는 남양주시 별내면 광암에 세워져있다.

■ 長子 홍문관교리공 號 六有堂(諱 首慶 : 1516-1562)

부사공의 손자이며, 증 우의정의 장남이시다. 공께서는 어려서부터 영특하시어 5살에 글을 알았고, 8세에 부친을 여이고, 15살에 경서를 읽어서며, 중종32(1537년)21세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이듬해 문과에 급제하시여, 한림 춘방을 거쳐 홍문관교리, 춘추관편수관에 올라 실록을 보수하면서 시국사에 관한 이야기에서 사림들에 대해 애석하다는 말이 있었다.이것을 보고 미워하는 간신들이 모함해서 삭탈관직 되어 함경도 온성으로 귀양 갔다가, 죽산으로 옮기였다. 명종8(1553년)초여름에 풀려서 선영이 있는 고향으로 내려가서 전북 임피현 진포 언덕에 정사를 짓고 편액을 육우당 이라 하고 독서와 후학에 힘썼다. 명종17(1562년)에 별세하니 향년 47이며, 명종21(1566)년에 특명으로 옛 직첩이 내려졌다. 묘소는 전북 군산시 임피면 강정리 묘목산 을좌에 있다.

「집성촌 : 1)황해도 벽성면 청룡면 집성촌은 손자이신 (諱 仁命)공을 입향조로 모시고 있다. 입향조 깨서는 현감을 지냈으며, 고을 사람에게 베푸신 공로로 송덕비가 세워져 있다. 벽성면에 살던 종인들의 일부는 인천지구에 많이 거주하고 있다. 2)충남 연기군 군서면 집선촌은 4대손인 (諱 公俊)공을 향시조로 하여 일촌을 이루고 있다.」

■ 次子 이조참판 청백리공 호 쌍호당(諱 重慶 : 1517-1567)

명종1(1546)년 생원으로 증광문과에 급제하여 한림원에 들어가 형님(諱 首慶)과 더불어 청선에 뽑히는 영광을 갖었다. 공은 글에 뛰어나 주로 예문관과 홍문관에서 활약하시였다. 병조 좌랑을 역임하면서 춘추관기사관으로 "중종실록과 인종실록"편찬에 참여하고, 명종8(1553)년에 대사간, 명종16(156)년 예조참의와 부제학, 명종18(1563)년 이조참판에 오르고 이듬해 대사헌을 겸하시고 외직으로 나가 온양군수가 되어서는 고을을 잘다스렸다하여 국왕으로부터 의복을 특사 받으시었다. 청백리에 록선 되시어 후손들에게 큰 영광이며 존경심과 긍지를 갖게 하시였다. 명종20(1565)년에 관직을 그만두시고 이곳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당남리로 낙향하시어, 글을 읽으시고 시문도 지으시며 학동과도 후학에 힘썼다. 명종22(1567)년 향년51세에 별세하시고, 묘소는 당남리 선산에 안장되시었다. 쌍호당 문중에서는 병신년(2016)년1월에 신도비를 건립 추진 중이다.

「집성촌 :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당남리 入鄕祖가 되시었다. 配 정부인 무송 윤 씨이나 일찍 돌아가시고, 파평 윤씨와 재혼하여 외아드님(휘 恒)을 두셨다. 무송윤씨 처가의 집성촌 대신면 보통리에 있어, 벼슬을 마치고 당남리에 터전을 세우고 낙향하시였다.」

■ 三子 증 사복시정공(諱 復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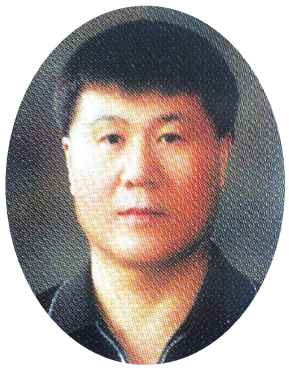
막내아우로 학문에 뜻을 갖고 독실하게 공부하였으나 불행하게도 일찍 졸하셨다. 서사별좌이며 사복시정을 증직 받았다. 묘소는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건좌 이며, 생존연대가 기록이 없고, 삼형재중 일찍이 사망하시여 후사가 없었다.

공은 후손이 없어 육유당 큰 형님(諱 首慶)의 5자(諱 徵)를 계자로 두시고, 진사공(諱 徵)께서도 후사가 없어 승사랑공(칠곡)(諱 心海)의 2자(諱 亨胤)를 계자로 입적하시니 향후 가선대부부호군으로 승차하시고 5남4여를 두시니, 3자이신(諱 道彬)통제사공을 1대로하여 8대에 걸쳐 병마절도사(병사)와 수군절도사를 배출한 가문이다.

「집성촌은 광전리(광암)에 入鄕祖이신 별좌공 配 이신 고령 신씨이며, 조부 묘소가 별내면 광전리 에 있고, 5대조인 문축공 신숙주공의 묘도 별내면 고산리 에 있으며, 고령신씨의 집성촌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 공께서는 처가의 인연으로 광전리(광암)에 입향 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후손이 번창하여 고주내, 춘천, 양구, 포천 등지에 집성촌을 이루고 있다.」

– 좌통례공파 종회 도유사 선래 삼가 씀 –

광림군(廣林君) 휘 정립(諱 廷立)公의 생애(生涯)



公의 諱는 廷立이시고 諡는 文僖 字는 子政 號는 溪隱이시다.

公께서는 광릉부원군 諱 克培公의 5代 孫이며 父는 淮城君 掌隷院 判決事公 諱 時茂의 長子로 태어나시었다. 公께서는 4세에 벌써 행동거지가 普通아이들과 달라 온 집안이 모두 公을 奇特하게 여기었다. 11세 때에는 최사문립(崔斯文岦) 에게 한서(漢書)를 배웠는데 최립이 당세에 제일류(第一流)라 일컬었고 13세 때에는 삼도부(三都賦)를 지어서 思庵 박순(朴淳)을 찾아뵈니 사암이 기이하게 여김으로서 마침내 명성을 크게 떨치셨다. 당시 李氏집안에 문장아(文章兒)가 있다는 소문이 퍼져 공경대부(公卿大夫)들께서 公을 만나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1576년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1580년 별시문과에 급제하시어 승문원에 들어가셨다. 1582년 수찬으로 있을 때, 今上께서 대제학 이이에게 명하기를 訓義綱目을 강의 하려고 하니 나이가 젊고 재주가 있고 총명한 신하 두어 사람을 선발하여 올려라 命하니, 이이(栗谷)선생은 다섯 사람을 천거하여 올렸는데 溪隱公(廷立), 漢陰公(德馨), 白沙公(李恒福) 등 3명이 함께 參詣 되셨다. 經筵에서 漢陰公, 白沙公과 함께 通鑑綱目을 시강하여 삼학사의 한사람으로 칭송을 받으셨으며, 세분께서는 어깨를 견주어 글로서 서로 모이고 도(道)로써 강론하시니 이 세분을 가리켜 일명 삼학사(三學士) 라고 부른다. 1582년에 사관(史官)이 되고 禮曹佐郎. 正言이 되셨다. 이듬해 사가독서(젊고 재능 있는 관료에게 독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휴가를 내리는 제도)를 하시고 吏曹佐郎으로 있을 때 어사가 되어 호남에 내려가 기근에 허덕이는 백성을 진구하셨으며 이후 경상도 암행어사로 정립公이 입경하시어. 금산군수 김협, 풍기군수 김대명에게 불법 문서를 포착하여 파직시키고 개령 현감 박무는 탐욕이 많고 백성을 학대한 죄로 파직하였다. 1589년에는 기축옥사를 다스린 공으로 平難功臣에 책록되셨으며. 掌令, 執義, 應敎. 直提學, 同副承旨, 刑曹參議, 左承旨 거쳐서 1592년 임진왜란 때에는 벼슬이 禮曹參議로 왕을 호종하시었다. 왕의 행차가 금교역에 이르렀을 때, 公께서 선조께 아뢰기를 종묘와 사직의 위판이 개성에 남아있다고 아뢰니 선조께서 놀라시며 公에게 즉시 모셔올 것을 命하였다. 公께서 위험을 무릅쓰고 개성으로 달려갔을 때에는 적장이 이미 들어와 있었으며 사람들은 성안으로 들어가면 죽음뿐이다 하고, 公을 못가게 극구 말렸으나, 公은 아랑곳 하지 않으시고 성에 들어가 종묘와 사직의 위판을 평양으로 모셔갔다. 선조께서는 크게 기뻐하시며, 公을 병조참판으로 삼으셨고. 이후 적세(賊勢) 가 날로 급박해지자 公은 兵曹參判 으로 中殿을 호종 하시고, 兵曹判書 이항복은 선조를 호종하시며 양궁(兩宮) 길을 나누어 가기로 하였다. 公께서는 中殿을 호위하며 東宮을 모시고 자산(慈山) 순천 (順川) 개천(价川) 희천(熙川)을 경유하여 장동(長洞) 평전(平田)으로 접어들어 곡산 (谷山)에 이르렀을 때 父親의 訃音을 접하고 임금께 이뢴 뒤 윤허를 얻어 본가(現 강동구 암사동) 로 돌아오니 집안은 온통 風飛雹散 이었다. 부친(當時 官職이 掌隷院 判決事)은 왜놈들에게 禍를 당하시어 돌아가셨고 아우 정견(廷堅)公께서는 왜놈들이 찌른 창 독으로 신음을 하고 계셨으며 母親 全州李氏, 弟嫂씨 되시는 慶州金氏, 며느님 되시는 廣州安氏 女息. 등 네분은 判決事公이 禍를 당하시는 것을, 目擊하시고 왜놈들의 겁탈을 피해 죽음을 택하기로 하고 모두 강물로 뛰어 들어가 마치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하였다고 한다(아우 되시는 정견 公은 창 독으로 3개월 만에 卒하셨고 女息은 찾지 못하였다). 忠臣 집안에서 줄줄이 孝子 孝婦 孝孫까지 나왔으나 하루에 다섯 사람이 죽고 뒤따라 또 한 사람이 죽어 일문육상(一門六喪)을 당하니 당시 公의 心情을 헤아려 본다.

公께서 정성껏 葬禮를 치루고난 후 今上은 출사(出仕)를 命하였으나 公께서는 禮節은 본디 變改시킬 수 없다는 이유로 사양하니 今上께서 특별히 윤허 하시며 제수(祭需)를 내리시고 예(禮)를 베푸셨다. 公께서는 어버이를 섬기는데 孝誠이 지극하여 出入 할 때에는 반드시 고하고 朝夕으로 음식을 살피었으며 아침부터 곁에 모시어 저녁때까지 떠나지 않으셨다고 한다. 公께서 복(服)을 마치시고 漢城府 佐尹이 되었다가 黃海道 觀察使로 나가게 되어 今上께 하직 人事를 올리자, 上께서 인견 하시며 피난길에 喪을 당한 悲慘함을 "내가 절대 잊지 않는다"고 하셨다. 그러자 公께서 울면서 시사를 진술 하셨다. 당시 부친께서 왜놈들에게 禍를 당하신 것을 盡言 드리고, 온 家族이 왜놈의 화를 피해 강물에 투신하신 情況을 今上에게 상세히 陳述하니 今上께서 가엾이 여기시며 公을 위로 하셨다. 또한 公의 장인(李純仁 都承旨,禮曹參議)께서 임진왜란 시 王妃와 世子를 호종 중에 선천(宣川)에서 과로로 병사하시니 그곳에 假墓하고 後 公께서 返葬 하여 葬禮를 치루어 주기로 하였는데 아이러니 하게도 그 葬地(礪山)에서 세상을 뜨시고 말았다. 당시 今上께서 슬퍼하시며 삼도(三道)에 命을 내려 護喪하고 廣州의 先人묘소 근처에 葬禮를 지냈다(지금의 강동구 암사동). 現의학으로 볼 때 公께서는 過勞가 累積이 되시어 돌아가시게 된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公께서 1595년(선조28) 내용과 같이 壽를 다하지 못하고 여산(礪山)에서 卒하시니 享年40세 였다. 公께서 忠臣으로 官職生活을 충실히 遂行하셨고 家長으로서 온家族이 왜놈에게 禍를 당하신 그때의 心情이 오죽하였으랴. 수기를 하는 筆者도 가슴이 무너지는 듯하다. 公께서는 議政府 史官을 시작으로 禮曹佐郎, 司諫院正言, 兵曹佐郎, 弘文館修撰, 吏曹佐郎, 刑曹參議, 禮曹參議, 兵曹參判, 漢城府 佐尹,을 거쳐 黃海道 觀察使를 하시고 廣林君에 봉해졌다. 贈職으로 大匡輔國 崇祿大夫 議政府 領議政을 追贈 받으셨고. 저서로 계은집(溪隱遺稿)이 있다.

– 광릉부원군파 종회 총무유사 문수書 –

칠곡 매원의 수강(壽崗) 3형제 "현서록(賢壻錄)" 발간

본문 좌통례공파 21대손 수강(壽崗 : 전 한국중공업 대표이사), 수쟁(壽崢), 수욱(壽勗) 3형제는 2012~2013년 중시조비위(中始祖妣位)에서부터 20대 모친까지 비위(妣位)의 친 · 외가와 행장을 정리하여 선비록(先妣錄)과 선비록 · 속(先妣錄 · 續)을 발간한데 이어 금년도 1월 "현서록(賢壻錄)"을 발간하고 대종회와 각 지파 종회에 1부씩 기증하였다.

이번에 발간된 현서록은 총 568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내용으로, 先代 廣李 따님들의 시가(媤家)와 시외가(媤外家)에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발간한 책으로 그 내용은 둔촌 선조부터 20代까지 직계 선조님 따님들의 타문중과 혼맥형성 내용, 그리고 그 사위들에 관한 사항을 광범위하게 조사하여 상세히 기록한 책이다.

본 현서록은 2014년도부터 작업을 시작하여 그동안 136개 문중의 족보와 25종의 도서를 참고하였다 하니, 세분 형제들의 뿌리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노력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으며, 특히 현서록 편저자인 수욱 현종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 연락처 : 이수강 010-5279-7894)

■ 편집자 註 : 본 기사는 (社)壬辰亂精神文化宣揚會가 매년 임란관련 지역을 찾아 개최하고 있는문화 · 학술대회에 발표된 내용으로 대회 7주갑을 기념하여 제작중인 "위훈록"에 수록될장렬공 휘 윤덕 선조님에 관한 자료로서 앞으로 2회에 걸쳐 본 회보에 수록합니다.

연로한 나이에도 불구하고 왜군 격퇴에 힘쓴 이윤덕(李潤德) ❶

Ⅰ. 머리말
Ⅱ. 가계와 생애
Ⅲ. 임란시 활동 사항
1) 제1차 평양성 전투
2) 명나라 군사 병력 주둔에 대해 의논한 바를 아룀
Ⅳ. 임진왜란 후의 삶
Ⅴ. 맺음말

Ⅰ. 머리말

1592년(선조 25) 4월 13일 일본을 출발한 약 20만 왜군이 부산으로 침략해 오면서 임진왜란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보다 2년 여 앞선 시점부터 일본의 조선 침략설이 돌았다. 이에 조선에서는 황윤길(黃允吉)과 김성일(金誠一)을 일본에 파견해 일본의 침략 가능성을 살펴보고 오도록 하였다. 일본에 갔다가 1년 만에 돌아온 이들 가운데 서인(西人)인 황윤길은 일본의 침략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동인(東人)인 김성일은 일본의 침략 가능성을 부정하였다. 결국 조정에서는 당파 싸움에 밀려 당시 권세를 잡고 있던 동인 출신인 김성일의 말을 더 신뢰하는 분위기였다. 따라서 그에 대한 방비책을 마련해두지 않은 채 왜군의 침략을 받은 조선은 동래성, 김해성 등의 전투에서 거듭 패하였다. 당시 연이은 승세를 탄 왜군은 파죽지세로 서울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는데, 급기야 충주에 배수진을 치고 있던 신립(申砬)마저 패전으로 자결하였다는 소식이 조정에 전해졌다. 그러자 선조는 4월 30일 파천하였다.

그러나 서울을 함락한 후 선조가 파천한 사실을 안 왜군은 평양을 향해 전진하였다. 당시 평양성에 있던 선조는 임진왜란 발발의 책임을 물어 동인 출신의 영의정 이산해(李山海)는 귀양을 보내고, 서인 출신인 윤두수(尹斗壽)를 좌의정에, 도원수(都元帥)에 이원익(李元翼)을 제수하였다. 당시 63세의 영변절도사 이윤덕에게는 관서부원수의 직함을 주었다. 그 후 왜군이 평양까지 진격해오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선조는 다시 의주로 파천하였다. 그리고 윤두수와 이원익 등에게 평양성을 지키도록 하였다. 이때 이윤덕은 대동강 여울을 지키라는 명을 받았다.

그로 인해 이윤덕은 제1차 평양성 전투, 일명 왕성탄 전투에 참전하였으나 중과부적(衆寡不敵)에다가 왜군이 신무기 조총으로 공격해오면서 패하고 말았다. 그로 인해 평양성은 대동강 여울 중 하나인 왕성탄(王城灘)을 건너온 왜군에게 함락되고 말았다.

이에 대한 책임으로 탄핵을 받은 이윤덕은 백의종군하던 1년여 기간 동안 백성들에게 의병활동의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그 후 다시 기용되자 연로한 나이에도 불구하고 임진왜란이 끝날 때까지 의병들에게 유격전술을 가르치는 등의 활약을 펼치며 왜군 격퇴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연로한 나이에도 불구하고 왜군 격퇴에 힘쓴 이윤덕의 임진왜란 때의 행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가계와 생애

1) 가계

이윤덕(李潤德)의 자(字)는 득부(得夫)이고, 본관은 광주(廣州)이다.

광주는 경기도 중부 지역에 있는 지명으로 고려 태조 때 오늘날의 지명으로 처음 지칭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회안(淮安)으로 불리었다.

구전에 의하면 광주이씨는 원래 신라17대 임금인 내물왕(奈勿王)때 내사령(內史令)을 지낸 이자성(李自成)이 칠원백(漆原伯)이 되어 성주(城主) 작위를 세습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신라가 망하고 고려가 건국되었을 때 모든 성주들이 왕건에게 항복하였는데 칠원성(漆原城)의 성주(城主)만 신라에 대한 절의를 지키며 항복하지 않았다. 그로인해 고려 태조가 칠원성을 에워싸고 오래도록 공격한 뒤에야 겨우 함락할 수 있었다. 이에 크게 노한 태조가 칠원성주의 일족(一族)을 모두 회안(淮安; 현 경기도 광주(廣州))으로 옮겨가게 한 뒤 고을 역리(驛吏)로 복역시켰다. 그로부터 칠원성주의 일족들은 몇 대에 걸쳐 회안에서 역리로 복역하였는데 대대로 훌륭한 인재들이 나타났다.

고려 말에 이르러 칠원성주의 일족 가운데 실권을 장악한 인물들이 후손들을 광주의 향리(鄕吏)로 이속시켰다. 그 후 칠원성주의 후손들은 과거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광주에서 세거하던 이당(李唐)이 생원(生員)이 되면서부터 이당을 시조로 삼고 광주를 관향으로 하여 세계를 이어오고 있다. 이당은 슬하에 5남 이인령(李仁齡) · 이원령(李元齡; 후에 이름을 이집(李集)으로 바꿈) · 이희령(李希齡) · 이자령(李自齡) · 이천령(李天齡)을 두었는데, 오형제가 모두 문과에 급제하면서부터 가문이 크게 번성하게 되었다. 그 가운데 고려 때 주자학의 유종으로 추앙을 받았으며, 문과 급제 후 판전교시사(判典校寺事)를 지낸 둔촌(遁村) 이집(李集)의 후손들이 광주이씨 가문의 번영을 중심적으로 이끌었다. 이집은 여말(麗末) 삼은(三隱;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 목은(牧隱) 이색(李穡), 야은(冶隱) 길재(吉再))같은 명현(名賢)들과 더불어 문교(文交)를 나누며 존경을 받아 삼은일둔(三隱一遁)으로 일컬어졌던 인물이기도 하다.

대표 인물로는 혼조삼리(昏朝三李; 한음(漢陰) 이덕형(李德馨), 오성(鰲城) 이항복(李恒福), 오리(梧里) 이원익(李元翼)) 중 한 사람으로 일컬어졌던 인물로, 임진왜란으로 짓밟힌 사직을 지탱한 명신 이덕형, 선조 때 영의정을 지내고 종묘 공신전에 위패가 모셔진 동고(東皐) 이준경(李浚慶), 동고의 사촌형이자 소재(蘇齋) 노수신(盧守愼)의 스승인 탄수(灘叟) 이연경(李延慶)이 있다. 그밖에 한강(寒岡) 정구(鄭逑)의 문인(文人)으로 임진왜란 후 해이해진 조정의 기강을 바로 잡는데 명성이 높았던 인물로, 성주(星主)의 회연서원(檜淵書院)에 배향된 석담(石潭) 이윤우(李潤雨) 등이 있다.

이윤덕은 둔촌공파의 파조 이집의 후손으로, 고조는 문과 급제 후 우의정을 지내고 영의정에 추증된 충희공(忠僖公) 이인손(李仁孫)이고, 증조는 좌리공신(佐理功臣) 광원군(廣原君)에 봉해지고 병조판서(兵曹判書)를 진낸 익평공(翼平公) 이극돈(李克墩)이며, 조부는 무과 급제 후 훈련원도정(訓練院都正)을 지낸 이세륜(李世綸)이다. 부친은 무과 급제 후 상호군(上護軍)으로 한성판윤(漢城判尹)을 지낸 이수훤(李秀萱)이고, 모친은 화원도정(華原都正) 이간(李揀)의 딸 증 정경부인(贈貞敬夫人) 전주이씨(全州李氏)이다.

2) 생애

이윤덕은 1529년(중종 24) 문과 급제 후 요직을 두루 역임한 선조들과 2대째 무과에 급제해 문무를 겸비한 집안에서 부친 이수훤과 모친 전주이씨 사이에서 독자(獨子)로 태어났다.

1559년(명종 14) 임금이 모화관(慕華館; 현 독립문 자리)에서 친히 관서(關西)의 교외(郊外)를 순행할 때 열무(閱武)하고 환궁하던 중 임금이 탄 말이 놀라 날뛰면서 임금이 말에서 떨어질 뻔하였다. 이때 무과 급제 후 선전관(宣傳官)을 지내던 이윤덕이 말을 막아서고 한담(韓倓)과 조수흥(趙守興) 등이 임금의 몸을 안아 내리면서 임금이 무사하게 되었다.[1] 당시 임금을 보위(保衛)한 공으로 이윤덕은 내승(內乘)[2]에 특진되면서 단번에 당상(堂上)의 지위에 올랐다.

1561년(명종 16)에는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를 지냈다.[3]

1564년(명종 19)에는 함경남도병마절도사(咸鏡南道兵馬節度使)에 제수되었다.[4] 이어서 1574년(선조 7)에는 경상좌도병마절도사(慶尙左道兵馬節度使)에 제수되었다.[5] 그리고 1575년(선조 8) 안변부사(安邊府使)를 지냈다.[6]

1584년(선조 17)에는 평안도병마절도사(平安道兵馬節度使)를 지냈다.[7] 이 해에 임금이 서총대(瑞葱臺)에서 2품 이하의 무신들에게 활을 쏘는 시범을 보이도록 하였다. 이때 1등을 하여 임금으로부터 숙마(熟馬)를 하사 받았다.[8]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조정에서는 당시 영변절도사(寧邊節度使)였던 이윤덕에게 관서부원수(關西副元帥) 직책을 주며, 대동강 여울을 지키라는 명을 내려주었다.[9]

1593년(선조 26) 행 호군(行護軍)을 지냈다. 이

때 영의정 최흥원(崔興源), 청천군(淸川君) 한준(韓準), 아천군(鵝川君) 이증(李增), 병조판서 이항복(李恒福) 등과 함께, 앞서 임금이 동궁(東宮)을 해주(海州)에 진주하도록 하라고 전교한 일을 거두어들일 것을 청하여 임금의 윤허를 받았다.[10]

1594년(선조 27)에는 동지돈령(同知敦寧)을 지냈다.

1599년(선조 32)에는 포도대장(捕盜大將)을 지내면서 도둑질을 하거나 행인의 물품을 빼앗으며 괴롭히는 달자(韃子)를 단속할 방법에 대한 의견을 조정에 올렸다.

1601년(선조 34) 조정에서 대신 및 2품 이상의 관원에게 왜적이 강화를 청한 문제에 대해 의논을 내놓으라고 할 때 그에 대해 의논한 바를 아뢰었다.

1607년(선조 40) 우변포도대장을 지내던 중 노쇠한 나이로 체차되었다.

1608년(선조 41) 다시 기용되어 훈련도정을 지냈다.

관직과 품계는 가선대부(嘉善大夫) 병조참판(兵曹參判) 훈련원도정(訓練院都正) 동지돈령부사(同知敦寧府使) 겸 오위도총부 부총관(五衛都摠府副摠管)에 이르렀다.

1611년(광해군 3) 83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하였다.

사후에 대광보국숭록대부(贈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부영의정(議政府領議政) 겸 영경연 홍문관 예문관 대제학(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大提學) 춘추관관상감사(春秋館觀象監事)에 추증되었으며, 장렬(壯烈) 시호(諡號)가 내려졌다.

묘소는 현 성남시(城南市) 중원구(中院區) 하대원동(下大院洞) 7의 1(둔촌공원 내 둔촌의 묘소 아래)에 자리하고 있다.

이윤덕이 생을 마감한 사실을 전해들은 명나라 황제가 이윤덕이 의주에서 치안을 원활하게 처리한 것을 치하하며 중국의 돌로 만든 비석을 하사하였다고 문중에 전해지고 있다.

2008년 5월 26일 이윤덕의 비석은 이윤덕의 선조 이집의 묘역과 함께 경기도 기념물 제219호로 지정되었다.

부인은 첨정(僉正) 증 승지(贈承旨) 윤회정(尹懷貞)의 딸 증 정경부인 파평윤씨(坡平尹氏)이다. 슬하에 7남 2녀를 두었는데, 아들은 군수(郡守) 이여온(李汝溫)·무과 급제 후 임진왜란 때 군기시부정(軍器寺副正)으로 활약한 이여량(李汝良)·이여공(李汝恭)·이여검(李汝儉)·이여양(李汝讓)·이여지(李汝之)·이여인(李汝仁)이고, 딸은 이덕보(李德甫)와 이형원(李亨遠)에게 출가시켰다.

[주석]

1) 「명종실록」 14년(1559), 9월 3일 기사 「모화관에서 열무하고 환궁하다가 말이 놀라 날뛰어 말에서 떨어질 뻔 하다」 참조.
2) 내승(內乘) : 조선 시대, 내사복시(內司僕寺)에 속하여 말과 수레를 맡아보던 관리.
3) 「명종실록」 16년(1561), 6월 21일 기사 「이중경·이언충·박응남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참조.
4) 「명종실록」 19년(1564), 7월 4일 기사 「권철·이몽량·송기수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참조.
5) 「선조실록」 7년(1574), 4월 13일 기사 「이산해·이윤덕·신각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참조.
6) 유희춘(柳希春), 「미암집(眉巖集)」 제12권 〈일기(日記)〉 「을해년(1575) 만력(萬曆) 3년 선조대왕 8년 1월」 참조.
7) 「선조실록」 17년(1584), 3월 1일 기사 「이우직·이산보·이윤덕·이경중·한응인·이홍인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참조.
8) 「선조실록」 17년(1584), 3월 25일 기사 「서총대에서 무신의 활쏘기를 보고 문신은 시를 짓게 하다」 참조.
9) 「선조실록」 25년(1592), 6월 11일 기사 「윤두수·이원익은 평양성을 지키기로 하였는데 이원익이 밤에 왜적을 쳐서 전과를 거두다」 참조.
10) 「선조실록」 26년(1593), 2월 2일 기사 「영의정 최흥원 등이 동궁을 해주로 진주하라는 전교를 다시 생각하라고 청하다」 참조.

口是禍門(구시화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입(口)은 다재다능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사람의 얼굴 하단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입은 입술로 모양을 형성하고 있으며 만인(萬人)을 두고 보아도 그 모양이 조금씩 다르고 그 입을 보면 볼수록 오묘(奧妙)함을 생각하게 한다.

그 기능으로 큰 역할은 음식을 씹어 먹는 일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보급하는 기능, 또 말을 하여 뜻을 표현하는 기능도 사람에게만 있다. 모든 음식은 땅에서 나온 것들로 땅의 地氣를 받고 자란 것이다. 바로 지기가 들어가는 곳이다. 에너지의 원천만 가지고는 모든 기능을 발휘할 수 없어 코의 기능을 빌려 산소를 흡입하여야만 하는데 코는 天氣를 받아들이는 곳이다. 그래서 조물주가 사람을 제조 완성할 때 입과 코 사이를 사람마다 길게 또는 짧게 사이를 띄어 놓았다. 그 사이를 人中이라고들 한다. 인중 위의 코는 콧구멍이 두 개 눈도 두 개, 귓구멍도 두 개가 있다. 인중 아래에는 구멍이 한 개씩 있다. 입도 1개 배꼽도 1개, 항문도 1개, 요도도 1개, 산도(産道)도 1개이다. 인중 위의 기관은 냄새도 잘 맡아보고 열심히 살펴보고, 잘 귀담아 들어야 하며 2개가 있는 것은 많이 쓰고 확실하게 정확하게 하라는 뜻이 있는 것이다. 만일 하나가 문제가 있어도 남은 것 가지고 잘 하라는 뜻도 있다.

하나만 있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어 아껴쓰고 조심해야 하고 아주 귀한 것이니 잘 보호해야 하는 것이다. 국어사전에 입은 입술에서 목구멍까지 부분 먹이를 섭취하며 소리를 내는 기관, 말재간의 기능이 다양한 것이 입이다.

또 달리 이야기하면 인간의 만사가 입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입으로 하여금 먹을 것과 복(福)도 들어오지만 화(禍)도 들락거리는 門이기도 하지요. 말을 잘못하면 재앙이 들어오고 들어오든 복도 나간다.

여기서 나온 말이 구시화문(口是禍門)이라는 말이 나왔다. 입은 재앙을 불러들이는 문이라는 뜻이다. 어떤 사람은 입이 개차반이다. 즉 말과 행동이 몹시 더러운 사람을 욕하는 말로써 복은 나가고 화가 들어온다. 말 한마디 잘하여 천량 빚도 갚는다는 말과 같이 말을 잘하면 큰 복도 들어오고 인품이 고매함을 얻어 명성을 휘날리는 일도 있다.

입은 갑(匣) 속에 들어있는 칼(刀)과 같다고 말합니다. 말(言)을 잘하면 복이 되고 말을 잘못하면 재앙이 들어오는 문(口)을 두고 하는 말이다.

언변(言辯)은 한 사람의 인품을 엿볼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으며 노래를 잘 하는 가수는 만인에 기쁨을 주고 즐거운 행복을 안겨주는 소리도 있다.

악의적인 언변은 큰 상처와 명예를 손상시키고 적대적 시비로 비화하여 큰 화가 일어난다. 특히 정치하는 사람 중 국회(國會)내에서 어떠한 말을 하여도 죄가 되지 않고 책임이 없는 권리를 이용하여 입에 담아서 안될 말을 하여도, 비난이 아우성 처도, 사과 한마디 없이 버젓이 활보하며 국민이 낸 세금으로 세비를 받아 호의호식하고 있다. 동방예의지국이란 말을 이젠 들어볼 수 없는 이 나라 현실이 큰 수렁에 빠지고 방황과 갈등 속에서 헤메이고 있다. 참으로 암울하고 이기주의적이고, 황금만능주의적인 풍토에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법치 아래 온갖 막말을 쏟아 낸 것들을 되새겨 본다.

한ㅇ구 교수의 막말 "김일성을 민족 영웅으로 치켜세운 말" 강ㅇ원 의원의 막말 "2012년 대선 개표 조작발언" 홍ㅇ표 의원의 막말 "박근혜 대통령은 선친의 귀태" 설ㅇ 의원의 막말 "세월호 사고 난 날 7시간 무엇을 하였나 밝혀라" 정ㅇ래 의원의 막말 "전국 중고교 교사들은 좌편향 교사, 우리 갈 길은 사회주의이다" 진ㅇ권 교수의 막말 "똥이 똥이라는 것을 굳이 먹어봐야 아시겠어요" "유신교과서 기필코 아버님 젯상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대국민 선전포고 한 것이라고" 등등의 막말은 이외에 좌편향 교사들의 수업시간 막말을 지면상 다 열거하지 못하지만 무수히 많다. 그래서 학부모들은 교과서 문제 보다 교사들의 시각이 더 중요하다고 우려한다.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좌, 우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뭉치고 단결하여도 통일이 어려운 암울한 현세에서 서로 당리당략만 내세우고 싸우면서 국론이 분열하면 침략의 야욕을 가지고 기회를 노리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고금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나라는 수없이 강대국의 침범을 당하였다. 일본에 36년간의 노예의 멍에를 진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않된다. 그러한 아픔이 한 세대를 넘고 70여년 지나니까 이제는 다 잊었는지? 또다시 종의 멍에가 아닌 멸망을 가져올지 모르는데 막말의 화(禍)가 쌓이고 쌓여 장차 이 나라에 어떤 모양으로 미칠지 아무도 모른다. 나라가 있고 자신이 있으며 나라의 의(義)를 위하여 모든 사람이 구시화문의 진리를 따라 의연(毅然)히 일어서 뭉쳐야 합니다.

2016. 1. 6 이중진 글

제4회 둔촌백일장 우수작품소개 [2 : 차상부문(초등부/청소년부)]

소중한 사람(운문)

이가원(천호초 6-5)

나는 오늘
단원평가
삼십점 맞았지만
기쁘다.
나는 오늘
담임선생님께
친구와 장난치다가
걸려 꾸중 들었지만
나는 기쁘다.
또 오늘
친구와 말꼬리 잡다
길에서 싸우고
왔지만
나는 기쁘다.
남들은
다 싫어하고,
무시당하는 자식도
사랑하시는,
이런 철없는
자식도 사랑하신다고,
버터구이 감자
해놓고
기다리실
나의 소중한 사람
나의 어머니가
나를 기다리시기
때문이다.

소중한 사람

이하은(상일미디어고 2-8)

내 마음은 종이입니다
소중한 사람은 내 종이에
자신의 여러 감정을 담아
여러 그림을 그립니다.
소중한 사람은 가끔
내 종이가 찢어질 정도로
흠뻑 빗물로 적셔버리지만
내 마음은 종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마를테니
그때 무지개를 그려서
나에게 다시 희망을 주세요.

소중한 사람에 대하여(산문)

구은우(선린초 6-2)

소중한 사람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많은 것 같다.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 연인, 혹은 선생님, 내가 생각하는 소중한 사람은 나의 아픔을 위로해주고 기쁨을 함께 나누며 행복을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조건에서 봤을때는 가족 아니면 친구가 가장 적합하다고 본다. 가족은 남이 아니라 나일 수 있고 오랫동안 같이 살아가기 때문이다. 친구는 나랑 마음이 맞는 벗이기 때문이다.

나는 언젠가 '이렇게 나의 소중한 사람이 사라진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라는 상상을 해본적이 있다. 친구를 잃은 그 소감은 외로움 그 자체이고 가족을 잃은 그 슬픔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를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 같다. 나 역시도 그랬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험하게 굴고 상대방은 상처 받고, 그 사람이 아예 나에게서 떠나가니 미안함과 후회감이 몰려왔다.

'아, 이 애한테 좀 더 잘해줄걸' 결국 사람이 떠나가야 그 사람의 소중함을 느끼는 것 같았다. 나는 그런 것이 싫었다. '왜 사람은 진작 그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을 몰랐지?' 이런 생각까지 나기 시작했다. 나는 계속 이런 생각을 한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라고. 그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는 있을 때 잘해야 한다고' 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계속 주고 있고 그 버릇을 고칠려고 아직까지 계속 노력하고 있다.

인권의 침몰

정소희(상일미디어고 2-7)

사람들은 누구나 소중한 것을 안고 살아간다. '소중한 것'은 사람에 따라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물이 될 수도 있다. 아마 청소년들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크게 두 가지, 하나는 게임기나 돈과 같은 물질적인 요소, 또 다른 하나는 부모님의 사랑, 가족과 같은 상당히 감정적이고 추상적인 요소를 말 할 것이다.

그렇다면 부모님 세대는 이 질문에 무엇이라고 답할까? 감히 추측해 보건대 대다수의 부모님들은 망설임없이 내 자식이라고 답을 할 것이다. 가정불화가 적지 않은 우리집에서 나와 내 동생이 기댈 곳은 오로지 엄마밖에 없다. 해서 엄마와 스스럼없이 여러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한 번은 엄마에게 물어 봤었다.

'엄마는 내가 만약 사라진다면 혼자 살 수 있겠어?' 라고 말이다. 엄마는 한참 내 눈을 빤히 쳐다보더니 별 시답잖은 얘기를 한다며 코웃음쳤다. 재차 물어보자 엄마는 하던 다림질을 멈추시고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너는 나에게 있어 살아가는 원동력이다.' 라고 하셨다.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본디 부모란 그런 것이 아닐까싶다. 내 자식이 다치면 몇 배로 더 아프고 내 자식이 죽는다면 따라죽을 수도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최근 475명의 부모들의 '소중한 것'을 빼앗다가 버렸던 사건이 있었다. 모두가 알고 있는 비극중의 비극, 세월호 사건이다. 2014년 4월 16일, 수 많은 학생들을 태운 배 '세월호'가 침몰했다. 탑승객 475명 중 사망자 295명, 시체조차 찾지 못한 사람들도 9명이나 된다. 이 사건의 발발 직후, 수많은 부모들은 자식의 생사여부를 묻고 다닌다. 그 심정이 얼마나 참담했을지 감히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 세월호 참사는 인권과 더불어 부모님의 마음이 침몰한 사건이다.

무엇보다 소중한 자식이 무서워하고 자신들을 애타게 찾고 있었을때에 그 손을 잡아주지 못하고 안아주지도 못한 그 심정이 어떠하리. 마지막이라고 부모님께 울면서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가 울부짖는 자식의 목소리를 듣는 부모의 그 심정이 어떠하리. 뉴스가 처음 나온 날, 엄마는 나와 내 동생을 끌어안으며 어떡해, 어머 등의 말을 연신 내뱉으셨다. 곁눈질로 보였던 건 약간 눈시울이 붉어진 엄마의 눈가였다. 비슷한 나이대의 자식이 있으니 아마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심정에 동감한 것이겠지. 피해 유가족이 아닌데도 그들이 슬픔이 전해지는 것 같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글은 자식들이 생수장되는 것을 고스란히 지켜본 부모들의 이야기인지라 아프다는 말로도 표현되지 않는다.

그래서 슬프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벌써부터 잊자고, 그만하자는 사람들이 많다. 뭘 그리고 잊자고 하는지, 소중한 것의 상실감을 알고는 있는지. 세월호 참사로 인해 정치건 사회건 너무 혼란스럽고 각각의 의견이 충돌되어 국가내 갈등이 극심하니 그래서 잊어버리자고 한다면, 그 잔해와 심정이 남아있는 팽목항에 가보기를 추천한다. 소중한 자식들을 잃은 그 비통함들, 원망을, 참담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바라옵건데 소중한 것, 자식을 잃은 수많은 세월호 피해자들의 아픔을 기억해주었으면 한다.

※ 세월호 피해자분들께 애도를 표합니다.

둔촌선생 명시선 16

– 도은(陶隱)에게 부치다 –

寄 陶隱
기 도 은

强扶衰憊入京華謁見交遊亦可誇餘子從他
강 부 쇠 비 입 경 화 알 견 교 유 역 가 과 여 자 종 타

皆已背唯君顧我更無加挑燈話舊圓公榻把
개 사 배 유 군 고 아 경 무 가 도 등 화 구 원 공 탑 파

酒論情圃隱家却到江湖誰與友白鷗煙月是
주 론 정 포 은 가 각 도 강 호 수 여 우 백 구 연 월 시

生涯
생 애

쇠약한 몸 억지로 이끌고 서울에 들어와 보니,
알현(謁見: 拜謁)하고 교유(交遊)하고 자랑스럽기도 하겠네 그려.
다른 친구들 딴 사람과 어울려 모두 등을 돌렸는데,
그대만은 나를 돌봐주니 더할 나위 없구나.
등불 돌아가며 원공(圓公)이 탑상(榻床)에서 옛날을 얘기했고,
술잔 들고 포은(圃隱) 집에서 정담도 나눴었지.
강호(江湖)로 돌아가면 그 뉘와 벗을 할까,
아서라 백구(白鷗)와 연월(煙月)이 나의 생애인 것을.

廣李 건강코너

이주일(李柱日)원장
– 한의학 박사 –

한약(韓藥) 소화제(消化劑) (7–1)

– 평위산(平胃散) –

우리가 과식(過食)을 하였거나 식체(食滯)하였을 경우 급히 배가 아프고 속이 쓰리며 구토(嘔吐), 설사(泄瀉), 두통(頭痛) 등(等)의 증(症)이 수반(隨伴)됩니다. 상식(傷食)의 정도가 심(甚)할 경우 발열(發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체(滯)하지 않았더라도 현대인들은 평소 트림이 잦고 속에서 신물이 올라오며 이로 인해 몸이 전체적으로 개운하지 않고 속이 답답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상의 '스트레스'들은 이런 증상들을 더욱 조장합니다. 게다가 위와 같은 위장(胃腸) 질환은 빨리 치유되지 않고 만성화(慢性化) 경향을 보이기 쉬워 자주 속이 쓰리고 대변이 묽어지며 입에서 구취(口臭)가 올라오고 머리가 맑지 않는(頭不淸) 등의 잡다(雜多)한 증상들을 동반(同伴)합니다.

이번에는 위와 같은 위장 질환에 좋은 소위(所謂) '한약(韓藥) 소화제(消化劑)'라고 할 수 있는 한약(韓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 평위산(平胃散)

구성 : 창출(蒼朮) 7.5g, 진피(陳皮) 5.25g, 후박(厚朴) 3.75g, 감초(甘草) 2.25g [생강(生薑) 3片, 대조(大棗) 2枚]

복용법 : 위의 약재(藥材)들을 가루를 내어 생강 · 대추와 함께 물에 끓여 생강 · 대추는 버리고 그 탕전액(湯煎液)을 따뜻하게 복용합니다.

효능 : 화위건비(和胃健脾)하고 행기(行氣)합니다.

주치 : 완복창만(脘腹脹滿), 불사음식(不思飮食), 구담무미(口淡無味), 오심구토(惡心嘔吐), 트림, 신물이 올라오는 증상, 대변이 묽으며 몸이 무겁고 자꾸 눕는 것을 좋아하는 증상을 다스려줍니다.

방해(方解) : 平胃散은 한약 소화제 중 가장 기본이 되는 방제(方劑)입니다. 方 中 蒼朮은 사람의 소화기에 들어가 辛溫 · 芳香 · 燥熱한 그 특유의 성질로써 행산(行散)하여 벽예화탁(辟穢化濁)하고 행기(行氣)하므로 中焦의 기기(氣機)가 조체(阻滯)되어 생긴 식체(食滯)의 증(症)을 뚫어줍니다. 厚朴 역시 행기(行氣)하고 구역(嘔逆)을 내려 강역(降逆)하고, 더부룩하고 답답한 위장 증상을 없애주는 작용으로 蒼朮의 효능을 돕습니다. 陳皮는 귤껍질을 말린 것으로 이기화탁(理氣化濁)하고 성비조중(醒脾調中)하여 식체로 흐트러진 몸의 기기(氣機)를 바로잡아 줍니다. 生薑 · 大棗는 우리 몸을 조화시켜 건운(健運)을 도와 소위 '배토제수(培土制水)'의 의미가 있으며, 甘草는 건비화위(健脾和胃)하면서 위의 諸藥을 調和합니다.

※ 주의 : 증상이 완화되면 즉시 투약을 중지하고 상복(常服)은 삼가야 합니다.

문의 : 李家삼대한의원 (031) 742–1075

이달의 明心寶鑑

康節邵先生曰 聞人之謗未嘗怒 聞人之譽未嘗喜
강절소선생왈 문인지방미상노 문인지예미상화

聞人之惡未嘗和 聞人之善則就而和之 又從而喜之.
문인지악미상화 문인지선칙취이화지 우종이희지.

其詩曰, 樂見善人 樂聞善事 樂道善言 樂行善意
기시왈, 락견선인락문선사 낙도선언 락행선의

聞人之惡 如負芒刺 聞人之善 如佩蘭蕙.
문인지악 여부망자 문인지선 여패란혜.

[해설]

강절(康節) 소선생(邵先生)이 말하기를 "사람의 헐뜯음을 듣더라도 성내지 말며, 사람의 칭찬을 듣더라도 기뻐하지 말며, 남의 악함을 듣더라도 이에 동조하지 말며, 남의 선함을 듣거든 나아가서 화응(和應)하고, 또 좇아서 기뻐해야 한다."

그 시(詩)에 이렇게 말했다.

"착한 사람 보기를 즐겨하고, 착한 일 듣기를 즐겨하고, 착한 말 이르기를 즐겨하고, 착한 뜻 행하기를 즐겨하며, 남의 악함을 듣거든 가시를 진 것같이 하고, 남의 선함을 듣거든 난초와 혜초를 찬 것같이 하라." [정기편(正己篇) 중에서]

산악회 新年 맞아 청계천길 5.8km 걸어...

재경화수회 산악회(회장 범수)는 새해를 맞아 지난 1월17일(일) 33명의 회원들이 모여 신년 첫 행사로 "청계천길 걷기" 와 2016년 정기총회 행사를 가졌다.

이날 참석자 중에는 대종회 재진 도유사님을 비롯, 원로 복재옹(93세)께서 참석하시는 등 연로하신 회원 분들이 많이 참석한 가운데 아침 10시 광화문 동아일보사 앞에서 모여 청계천길의 시발점인 청계광장 "소라탑"에서 단체사진을 찍은 후 본격적으로 걷기에 나섰다.

청계천은 길이 총 10.84km로 서울의 종로구와 중구를 가로지르는 하천으로 조선시대에는 개천(開川)이라 부르다가 일제시대 지명정리 사업으로 청계천(淸溪川)으로 부르게 되었으며, 조선의 한양정도(漢陽定都) 당시는 자연하천 그대로여서 홍수가 나면 민가가 침수되는 물난리를 일으켰고 평시에는 오수가 괴어 매우 불결하였는데 조선조 태종(3대)이 개거공사(開渠工事)를 벌여 처음으로 치수사업을 시작하였고, 그 후 영조, 순조, 고종을 거치면서 준설 등 개천사업을 해 왔다고 전한다.

근대에 들어 많은 우여곡절 속에 2003년 7월부터 시작된 서울시의 청계천 복원사업계획에 의하여 지금의 도심 속 하천으로 개통(2005년), 서울을 여행하는 사람이라면 꼭 들러야 할 명소로 자리메김하고 있다.

일행은 남측 천변을 따라 삼삼오오 짝을 이뤄 대화를 나누며 겨울 속 도심 천변을 걸었으며, 곳곳의 갈대숲과 무리를 지어 추위를 이기려는 듯 모여 있는 잉어 때를 보며 환성을 지르기도 하였는데 이는 겨울 청계천에서 볼 수 있는 진풍경 중 하나가 아닐까?

11시30분경 양지바른 쉼터에 도착한 회원들은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이날 주 행사인 2016년 산악회 정기총회를 갖고 작년 한해 활동에 대한 경과보고와 함께 택수 산악회감사의 감사보고를 들은 다음 결산내역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어서 재진도유사님, 광래 기우회장님의 격려의 말씀을 끝으로 회의를 마쳤다.

일행은 다시 걷기를 시작하여 12시반경 목적지인 제2마장교에 도착, 인근 "청진동 해장국"집으로 모여 산악회에서 제공한 점심식사를 나누며 즐거운 돈목의 시간을 가진 후 이날의 행사를 모두 마무리 하였다.

– 산악회 총무 재석 記 –

2월 행사계획

▶ 일 시 : 2016년 2월 21일(일) 10시
▶ 장 소 : 북한산 둘레길 ▶ 준비물 : 물, 도시락
▶ 만남장소 : 지하철 3호선 불광역 2번출구 로 나와 횡단보도 건너 녹번파출소 앞.
▶ 연락처 : 회장(범수) 010-5253-4248 / 총무(재석) 010-5108-1988

광주이씨회보 구독 및 찬조금 명단

금액이 2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찬조금으로 보아주십시오.

이름	금액(원)	비고	이름	금액(원)	비고	이름	금액(원)	비고
12월 구독 및 찬조			이훈익	20,000	경기 수원시	이도전	20,000	경상북도 군위군
이염래	20,000	서울시 서초구	이영수	20,000	서울시 강남구	이동래	20,000	경기도 고양시
이번래	20,000	서울시 관악구	이광언	20,000	서울시 성북구	이수팽	20,000	대구광역시 북구
이원교	20,000	서울시 송파구	이철수	20,000	경기도 평택시	이윤재	20,000	경상북도 의성군
이태수	20,000	경기도 수원시	이용성	20,000	전라남도 보성군	이좌운	20,000	서울시 동대문구
			이정실	20,000	서울시 종로구	이성재	20,000	서울시 강남구
1월 구독 및 찬조			이종일	20,000	경기도 화성시	이동재	20,000	전라남도 보성군
이종철	20,000	서울시 강동구	이유재	20,000	경기도 고양시	이주상	30,000	서울시 서초구
이창선	20,000	전라남도 여수시	이종화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이윤재	20,000	충청북도 충주시
이홍식	20,000	광주광역시 남구	이준희	2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이선기	20,000	서울시 강남구
이수홍	20,000	경상북도 칠곡군	이용휘	30,000	서울시 강동구	이창수	20,000	서울시 관악구
이용석	20,000	충청남도 공주시	도정공종회	20,000	서울시 성동구	이남재	20,000	경상북도 상주시
이윤래	20,000	경기도 포천시	이영환	20,00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이용석	40,000	인천광역시 서구
이근형	20,000	경기도 하남시	이용구	50,000	경기도 양평군	이종준	20,000	경상북도 구미시
이복재	20,000	경기도 여주시	이종주	20,000	경상북도 포항시	이범희	20,000	경기도 양평군
이용철	20,000	광주광역시 서구	이현재	2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이정수	30,000	서울시 동작구
이섬래	30,000	경기도 의왕시	이종성	20,000	경기도 구리시	이철재	30,000	충청북도 충주시
이용정	20,000	부산광역시 북구	이범수	20,000	서울시 성동구	이종익	30,000	경기도 수원시
이영택	20,000	경북 포항시	이성수	20,000	경기도 부천시	이주하	20,000	서울시 광진구
이명익	20,000	서울시 강동구	이종욱	20,000	충청북도 청주시			

구독료납부 안내

지금까지는 회보 구독료를 납부하지 않은 종원들께도 회보를 계속하여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나 2013년 3월부터는 구독료를 납부하지 않으시는 분께는 회보를 발송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구독료를 납부하지 않으신 종현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구독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년 구독료는 20,000원 입니다.

지로용지가 없으시면 기업은행 계좌번호
024-068156-01-019 이재진 으로 송금하시거나
지로장표 번호 MICR 7533004 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송금하시거나 지로장표로 보내실 때에는 회보를 받아 보실
주소 및 성명을 명확하게 적어 보내주시거나
02)735-1720 으로 연락주십시오.

광주이씨대종회 광주이씨회보 편집실

西紀 2016年 2月 1日
<제308호>
廣州李氏會報
發行人 兼 編輯人 : 李 宰 鎭
主 幹 : 李 碩 載
發行處 : 廣州李氏大宗會
www.gwanglee.or.kr
서울特別市 鐘路區 寬勳洞 197-9番地 廣陵빌딩 501號
Tel. 02)735-1720 · Fax. 02)735-1721
E-mail : gwangleedae@nate.com